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재개되나

녹지그룹, 8월까지 미지급 공사비 전액 상환키로 지난 28일 297억원 우선 갚아... “사업 의지 표명”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다시 순항하게 될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녹지그룹이 8월까지 미지급 공사비 전액을 상환하기로 시공사와 합의했고, 약 297억원을 지난 28일 우선 상환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JDC, 녹지그룹 3자가 모인 지난 28일 회의에서 녹지그룹은 공사 재개 준비와 사업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JDC는 전했다.

중국 부동산개발회사인 녹지그룹은 서귀포시 토평동과 동흥동 일원 153만9013㎡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과 웰빙 푸드존, 의료 연구개발 센터 등을 갖춘 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2013년 1월 공사를 시작해 콘도미니엄 등은 완공했으나 공사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해 지난해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회의에서는 녹지그룹 2단계 사업 공사재개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주도와 JDC 차원의 지원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녹지제주(유) 관계자는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1조 130억원 투자를 계획해 지금까지 약 6791억원을 투자했고, 이 사업이 해외 첫 투자 프로젝트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개 시공사(한화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와 미지급 공사비 상환일정을 합의해 그 중 일부인

약 297억원을 28일 우선 상환했고, 8월까지 잔여금을 모두 상환하기로 했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내 외국 투자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며 의료관광산업 육성과 활성화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제주도와 JDC, 녹지그룹은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공사재개 등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한 현안 해결방안 모색과 협력을 위한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문대림 JDC 이사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녹지그룹 본사를 방문해 장욱량 총재를 만나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두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면담을 진행했고, 사업부서 마을들 과도 간담회를 갖고며 사업 재개를 위한 소통에 힘써 왔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농가 외면 ‘국산 감귤품종’... “유인책 필요”

오영훈 의원 주최 토론회 신품종 보급 확산 방안으로 빠른 수확 가능한 대묘 공급 농가 인센티브 부여 등 제안



지난 28일 제주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소 대강당에서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주최한 ‘로열티 대묘 감귤 신품종 개발·보급·확산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산 신품종 감귤 묘목의 보급 확산을 위해 대묘(大苗) 생산 지원 확대와 국산 품종 재배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지난 28일 오후 제주대 친환경농업연구소 대강당에서 ‘로열티 대묘 감귤 신품종 개발·보급·확산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와 제주도농업기술원, 제주대, GSP 원예종자사업단 등이 공동 주관했다.

현재 국산 감귤품종은 27종이 육성됐으나 농가에 보급된 품종은 14종에 불과하다. 면적도 470ha 수준으로, 감귤 전체 면적의 2%에 그친다. 또 과수재배 특성상 묘목 갱신 기간이 길고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인식 부족과 품종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배기술이 확립되지 못해 보급에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현재육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장은 ‘감귤 국내 품종 육성 현황 및 조기보급 방안’을 주제로 국산 감귤품종 보급·확산을 위해 시범 사업 홍보와 품종맞춤 재배법 확립, 차별화된 유통 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품종 묘목으로 전환할 경우 농가 수입 증대에 따른 대책으로 ▷식재 1~2년 후 수확할 수 있는 대묘 공급 ▷국산 품종 재배 농가에 대한 FTA지원 사업 활용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개발 품종에 최적화된 재배법 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농가 수준에서의 실증 평가가 미흡한 점에 대한 대안으로 ▷우수한 품종 육성 및 재배 매뉴얼 확립 ▷지역별 농가 시범 및 전시회 확대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소진기자

도·교육청 추경 심사 돌입 도의회, 오늘 임시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제375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앞서 제주도는 제1회 추경 5조4363억원 대비 5.8%(3142억원) 증액된 5조7505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2회 추경은 주민협약 및 도민 불편사항, 미세먼지 등 생활과 직결된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 배분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당초 본예산 1조 2012억원에서 1820억원(15.2%) 증가한 1조3832억원 규모의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공무원 102명을 증원하는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일부개정 조례안’도 심의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차고지증명제, 교통유발부담금)·안전(산안전자 보검)·환경(미세먼지)·사회복지(커뮤니티케어) 분야와 신규 공공시설물 개관 및 일선 행정 분야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와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은지기자



서귀포시가 운영 중인 재활용도움센터에 설치된 빈병 회수기에서 한 시민이 빈병을 반환하고 있다.

빈병 반환 편해지니 지급액 1억 돌파

서귀포시 재활용센터 6곳 반환 보증금 작년의 50% ↑

서귀포시는 재활용도움센터 6곳에서 올해 5월까지 시민들에게 반환한 빈병 보증금이 9900만원(97만6000병)으로, 상반기 지급액이 1억1000여만원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반환 보증금 기준 작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액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중인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한 빈병 보증금 반환제도는 2017년 7월 대정읍 동일

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후 남원리, 화순리, 표선리, 효돈동, 중문동으로 확대했다.

슈퍼 등 일반 소매점에서도 빈병 반환이 가능하지만 개인당 반환량을 하루 30개로 제한하면서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서귀포시가 설치한 6곳의 빈병 회수기에서는 수량 제한없이 배출이 가능해 지역주민은 물론 자생단체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빈병 반환 업무를 맡는 6명의 인력을 채용해 하루 4시간씩 근무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자유한국당 상임위 전격 복귀 국회 84일만에 사실상 정상화

제주 관련 법안 논의 주목

자유한국당이 의정활동에 전격 복귀하면서 국회가 80여일만에 사실상 정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한국당은 의원 총회를 열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

체 원내대표 간 합의의 사항과 전체 상임위 등원을 함께 의결했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59일, 4월 5일 본회의 기준으로 84일 만의 국회 정상화다. 다만 여야 합의는 6월 국회 의사일정이나 경제전문회 또는 경제위원회의 개최 여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절차 등을 포함하지 않아 향후 국회 정상 운영의 돌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

아있다.

국회 정상화에 따라 20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1만4000여건에 이르는 민생법안 처리에도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제주4·3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데, 국회 정상화로 매일 둘째, 넷째 화요일에 열리는 법안소위가 정상가동되면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부미현기자

제주도의회 부의장에 강충룡 의원

고(故) 허창욱 제주도의회 부의장 별세로 공석이 된 도의회 부의장에 바른미래당 강충룡 의원(사천·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이 선출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8일 부의장 보궐선거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제374회)를 개최했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선거는 1차에서 과반수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차 투표까지 이어진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23표를 얻은 강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됐다.

강충룡 부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도의회의 역할인 도정에 대한 감시

와 견제, 협력에 대해 소통하면서 도민에게 희망과 미래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부의장에 선출됨에 따라 소속 상임위를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겼다.

오은지기자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구인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1급~6급)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액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80만원	본인부담금 0원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31,000원 (90%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액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멍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가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9-041800079

WIDEX®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